



황희찬·이정은·정현 “내년은 나의 해”

2020년 경자(庚子)년이 다가오면서 새해를 빛낼 '쥐띠 스포츠 스타'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맞이하는 쥐띠 스포츠 스타들은 체육 분야의 특성상 24세가 되는 1996년생, 36세가 되는 1984년생들이 많다.

먼저 축구 대표팀의 황희찬(잡츠부르크), 황인범(밴쿠버), 김민재(베이징 귀안), 나상호(FC도쿄) 등이 1996년생 동갑이다.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는 황희찬은 이번 시즌 총 9골, 리그 경기에서는 6골을 터뜨리며 유럽 '빅 리그' 진출을 위해 꾸준히 나들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황인범과 김민재, 나상호는 18일 부산에서 끝난 동아시아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인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넣은 4골이 모두 이들 '쥐띠 스타'들이 도맡았다.

홍콩과 1차전에서 황인범의 프리킥, 나상호의 헤딩슛으로 2-0 승리를 따냈고 중국을 상대로는 김민재의 헤딩 득점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일본과 최종전에서도 황인범의 결승 골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출격하는 한국 여자배구에는 '쥐띠 스타'가 핵심 전력을 이룬다.

쌍둥이 자매 국가대표인 이재영(흥국생명), 이다영(현대건설)이 1996년생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 인기 스타인 이들은 올림픽 본선행을 노리는 대표팀에서 이재영이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이다영은 세터로 공격을 조율한다.

올해 15승을 합작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코리아 시스터스' 중에서는 이정은(23)이 '쥐띠 골프'의 선봉에 선다.

2019년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이정은은

2020년 한 단계 더 도약할 태세다. 1년 선배인 고진영이 2018년 신인상 수상 이후 곧바로 2019년에 올해의 선수, 상금왕, 평균 타수 1위 등을 휩쓰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각오다.

프로농구에서는 '차세대 선두 주자'로 기대를 모으는 송교창(23-KCC)이 대표적인 '쥐띠 스타'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박정현(23-LG)과 이들보다 12년 위인 김태술(35-DB), 양희중(35-인삼공사), 함지훈(35-현대모비스) 등도 '쥐

띠'들이다.

여자프로농구 인선 신한은행의 한채진(35)은 리그 최고령 선수로 활약 중이다. 최고령 한채진은 출전 시간 부문에서 평균 37분 25초를 뛰며 1위에 올라 있어 말 그대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제네시스 후원)은 1월 호주오픈에서 2018년 '4강 신화' 재현에 도전한다. 정현은 황희찬 등 동갑내기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친분이 남다른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바둑 여제' 최정(23) 9단은 올해 국내대회 여자 국수전과 여자기성전을 석권했고, 세계대회에서 궁룡산병성배와 오정원배를 제패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세계대회 센코깁까지 여자대회 전관왕에 도전한다.

12월 한국 바둑 랭킹 17위에 올라 있는 최정은 남자기사들이 참가하는 종합기전에서 입상하는 것이 오랜 도전 과제다.

/연합뉴스

축구

황희찬·황인범·김민재·나상호 해외 리그·국제대회 맹활약

골프

올 LPGA 투어 신인상 이정은 “선배 고진영의 길 가겠다” 포부

테니스

정현, 다음달 호주오픈 출전 2018년 '4강 신화' 재현 도전

바둑

최정 9단, 국수전·기성전 석권 내년 종합기전 입상 도전



정현



황희찬



이정은



최정



윤석민, 팬 200명 초청 석별의 정 나눈다

다음달 18일 사인회·팬과의 만남 등...네이버카페에 참가 신청

은퇴한 윤석민이 KIA 타이거즈 팬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윤석민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들에게 받은 과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 2020년 1월 18일 팬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글을 올렸다.

윤석민은 내달 18일 오후 6시 광주 치평동 JS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엔 200여명의 팬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 상무지구 밀탑에서 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만남의 자리도 갖는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활약했던 윤석민

은 지난 13일 은퇴를 선언했다.

2016년 12월 어깨 외박 수술을 받은 그는 2018년 28경기에 등판, 팬들을 웃게 했지만 올 시즌에는 부상에 시달리면서 단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다.

윤석민은 오는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재기를 노렸지만, 고심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

계속된 재활로 팀 주축 선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윤석민은 “다시 마운드에 서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어깨 상태가 좋지 않다. 지금 이 상태에서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주문하고 이끄는 게 미안하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

했다”고 은퇴를 이야기했다.

은퇴 발표 후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등 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른 윤석민은 이어 팬들을 생각했다.

2005년 2차 1라운드 선수로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된 윤석민은 KBO 통산 12시즌 동안 398경기에 등판해 77승(75패) 86세이브 18홀드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한 KIA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미국 진출과 부상으로 어려운 시간도 보냈지만 12차례 완투와 6차례 완봉승을 했고, 2011년에는 선동열에 이어 KBO리그 역사상 두 번째 ‘4관왕’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MVP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윤석민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윤석민은 “그동안 운동하고 재할에 집중하느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은퇴를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지난 시간을 많이 돌아봤다”며 “많은 팬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꿈을 이뤘고, 행복한 일도 많았다. 많은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민이라는 선수와 KIA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또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 등 주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팬들과 기부 행사도 진행할 생각이다. 약소하지만 기본 좋게 팬분들이 다녀가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팬은 행사와 관련한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ysm20282124>)에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마추어가 작성하는 야구 경기 기록

KBO 기록강습회 다음달 창원·서울서 개최

2020년 KBO 기록강습회가 내달 창원(10-12일)과 서울(16-18일)에서 개최된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이번 강습회는 창원컨벤션 센터와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된다. 2016년 부산을 시작으로 역대 5번째 지역 강습회도 열리면서 이번에는 창원·경남 야구팬을 만나게 된다.

기록강습회는 KBO 공식기록원들의 강의로 진행되며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공식기록지 작성법을 바탕으로 기록 및 경기 규칙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강신청자에게는 실습용 야구기록지와 기록 가이드북이 교재로 제공된다. 강습회 종료일에는 전체 강습 과정의 이해도 점검을 위한 기록 실기테스트가

실시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성적 우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2020년도 제10기 전문기록원 양성과정의 우선 수강자격을 준다.

창원·경남지역의 수강신청 기간은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5시, 서울(건국대)은 9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BO 홈페이지 수강신청 접수 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KBO 홈페이지 내 기록위원회 게시판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20년 제10기 전문기록원 양성과정(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4주간 총 8일 40시간)은 2월 중 시행된다. 수강신청과 접수에 관한 내용은 KBO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프 톱 랭커들 올림픽 출전권 집안 경쟁

세계 랭킹 15위 한해 한 국가서 4명 출전...미국, 켈카·우즈 등 5명 각축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남자골프가 내년 도쿄하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치열한 집안 경쟁을 예고했다.

골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복귀했지만, 그때만 해도 출전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았다.

세계 톱랭커들이 저마다 핑계를 댔지만 결국 브라질에서 만연했던 Zika 바이러스가 두려워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내년 도쿄올림픽은 상황이 다르다. 톱랭커들이 참가를 선언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골프는 내년 6월 29일 발표되는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15위 안에 든다면 한 국가에서 최대 4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현재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은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켈카를 비롯해 저스틴 토머스, 더스틴 존슨, 타이거 우즈가 출전한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랭킹 15위 안에 무려 5명의 선수가 더 있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세계랭킹 4위인 토머스는 “올림픽에 꼭 가고 싶다”면서도 “매주 세계랭킹이 바뀐다. 선수들이 너무 뻥뻥하게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골프황제’ 우즈는 2019년 화려한 재기를 바탕으로 올림픽 출전을 노린다. 우즈는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나이 44세에 차기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올림픽 출전 의지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